

지역 소식통

부안군, 2023년 교육발전 협력위원회 개최

부안군 교육발전협력위원회(위원장 권익현)는 지난 18일 부안군청 대회의실에서 민·관·학 전문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안군 교육발전을 위한 열띤 토론회를 가졌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3년도 부안군 교육지원 사업성과 보고 △2024년도 부안군 교육지원 사업계획 보고 △부안군 교육발전을 위한 새로운 정책 제안 등이 이루어졌다.

2023년 주요 성과로는 학생국의 문화탐방에 1억5천만원을 편성 지원, 지방소멸대응, 행복운마을 학교 지원 1억원, 통학택시 운영 사업비 추가 확보로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하였다.

주요 토론 내용으로는 △부안 동초 등하교 안전시설물 설치 △하서 3개 학교 급식소 리모델링에 따른 대체급식 마련 △폐교를 활용한 학교별 역사문화 공간 마련 △전통키보드 안전한 사용을 위한 계도 및 홍보 안내 등 의견이 제시되었다.

권익현 부안군 교육발전협력위원회 위원장은 "우리 학생들이 새로운 가능성으로 부안의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정책 제안 등을 적극 제시해달라"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의회(의장 고경윤) 의원 연구단체인 정읍시 조례 정비연구회(대표의원 이만재)가 지난 18일 정읍시 조례 정비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정읍시 조례 정비연구회는 이만재, 황해숙,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한선미 의원 등 6명의 의원으로 구성돼 지난 4월부터 연구용역을 진행하며 정읍시 조례 489건 중 시민 생활과 관련된 240여 건을 대상으로 조례를 집중 분석·검토하고 조례 전반에 대한 정비방안을 연구하였다.

그 결과 연구회는 현행 정읍시 조례를 분석·검토하여 우선 정비 대상으로 제시된 205건의 일부 개정 조례안과 43건의 신규 조례안을 발굴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의회, '조례 정비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 부안군, 사회복지박람회 개최

군청 광장서 함께 나누고 · 함께 누리는 복지놀이터 열어

19일 부안군청 광장에서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와 2023 부안군 사회복지박람회가 열렸다. 올해 24회를 맞는 사회복지의 날(9월 7일)은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고 사회복지 종사자를 격려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업법으로 지정된 법정기념일이다.

이날 행사는 부안군이 주최하고 부안군사회복지협의회, 부안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부안군사회복지사업회가 주관한 행사로 권익현 부안군수를 비롯하여, 이현기 부안군의회 부의장 김슬지 전라북도의회 의원, 나춘균 전북사회복지협의회장, 사회복지 종사자, 사회복지협의회 회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1부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은 일파벳 어린이집 어린이들의 국악공연을 시작으로, 사회복지에 헌신적으로 참여하고 사회복지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표창(부안군수 표창 10명, 부안군의회 의장 표창 5명), 개회사, 축사, 사회복지사업 윤리선언 ESG경영실천 퍼포먼스 순으로 열렸다.

2부 사회복지박람회에서는 부안에 살고 있는 청년들이 모여 만든 음악밴드 발마음 공연을 시작으로, 부안복지관 종사자 밴드 동아리 라바의 공연 등 26개 사회복지 기관·단체에서 각종 체험, 공연 등 부스를 마련하여 사회복지박람회를 진행하였다.

이 박람회에서는 다양한 복지채널을 통해 "함께 나누고, 함께 누리는 복지놀이터"의 모토로 진행되었으며, 이러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군민이 직접 체험하고 참여하여 복지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이웃과 함께 하는 누리는 복지놀이터를 실현하고자 했다.

이춘섭 협의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써주시는 사회복지종사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촘촘한 복지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도움이 필요한 분들 곁에서 그분들과 함께하며 도움을 주기 위해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사회복지인들의 헌신과 열의에 감사드리며, 현장에서 노력하는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이 19일 고창읍 월곡꿈에그린커뮤니티 광장에서 직영 전환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개소식을 열었다.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문열어

고창군, 월곡꿈에그린 커뮤니티 광장서

고창군이 19일 고창읍 월곡꿈에그린커뮤니티 광장에서 직영 전환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개소식을 열었다.

행사는 심덕섭 고창군수를 비롯해, 고창경찰서, 고창교육장 등 청소년 유관기관장, 학교지원단, 1388청소년지원단, 청소년상담사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고창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1992년에 문을 열고 30여년 동안 청소년 상담, 긴급구조, 자립, 의료지원 등을 통해 지역 청소년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왔다.

하지만 급속하게 변하는 상황 속에서 다양한 유형의 위기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상담 필요성이 커지면서 고창군이 지난 7월1일자로 직영으로 전환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앞으로 청소년 안전망 운영을 강화하고, 유관기관과 지역주민의 충실한 연계를 통해 지역 청소년들이 맑고 건강한 고창군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헌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2일 청소년안전망사업의 일환인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한 제2차 청소년복지심의회를 개최하고 선정된 12명의 대상자에 대해 9월중 의료비 및 생활지원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 정읍시, 3년 연속 축산악취개선 공모 최종 선정

총 사업비 14억원 확보... 분뇨처리방식 개선 추진

정읍시가 2024년 농림축산식품부의 축산악취개선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이로써 2022년부터 이번 공모까지 3년 연속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축산악취개선사업은 축산농가 악취의 주요원인인 가축분뇨를 처리·관리하고 저감할 수 있는 시설·장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축산농가에 필요한 사업이다.

농식품부는 전국 56개 시·군의 신청을 받아 1차 시·도 자체평가, 2차 농식품부 중앙평가를 거쳐 상위 33개 시·군을 사업지로 선정했다.

시는 2022년과 2023년 사업을 통해 퇴비사, 정화방류, 악취저감시설 지원 등 축산농가 악취개선에 힘써왔다.

내년 축산악취개선사업은 사업비 14억원을 투입해 정화방류시설 등 축산농가의 분뇨처리방식을 개선해 중장기적으로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시설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학수 시장은 "지역 내 자원화 업체들의 친환경적 가축분뇨 처리와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 확충으로 축산악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도록 하겠다"며 "폐적한 축산환경을 조성해 축산농가와 지역주민이 어우러져 지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신규 국비사업 발굴과 공모사업 참여 등 국비 예산 확보에 전념하겠다"고 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 정읍시, 추석명절 대비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지도단속

정읍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지도단속에 나선다.

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수산물 안전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커지는 만큼 20일부터 22일까지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특별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주요 단속사항은 추석 명절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고 수입 의존도가 높은 돌과 가리비, 조기, 명태 등 제수용 수산물과, 멸치, 굴비세트 등 선물용 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등이다.

고인경 농수산유통과장은 "지역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가 믿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판매자는 정확한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소비자는 철저한 원산지 확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 고창군-포항시, 동서지간 프로젝트 2탄 판촉 행사

"동해인의 일출과 서해인의 노을이 만나 아름다운 조화를 이뤘다"

고창군(군수 심덕섭)과 포항시(시장 이강덕)는 동서지간 프로젝트 2탄으로 온라인 쇼핑몰 '롯데ON'에서 고창 풍천장어와 포항 명이나물 세트를 행사를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2탄 행사는 추석을 맞아 보양식으로 고창 풍천장어 1kg(2~3인분)과 포항 명이나물 4팩으로 구성된다. 온라인 쇼핑몰 '롯데ON'에서 정상 판매가 대비 최대 23% 저렴하게 특별 판매되며 1000세트 한정이다.

'동서지간 프로젝트'는 한반도 동쪽과 서쪽의 화합과 상생을 위해 고창군과 포항시가 공동 기획한 지역 특산품 판매 프로젝트다.

지난 2월 1탄으로 포항 과메기와 고창 지주스김 세트를 NS 홈쇼핑 판매를 통해 소비자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고창군은 향후 포항시와 동서지간 프로젝트 3탄을 공동기획하고 관광 상품 개발을 추진하는 등 포항시와 협력해 영호남간 상생발전에 앞장설 계획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동서지간 프로젝트가 고창 농특산물 홍보와 판로개척에 도움이 되고 있으며 자치단체간 우수 상생협력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번 추석선물로 동서지간 선물세트를 추천드린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 착한신고

##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

